

플라스틱 가구디자인의 조형세계에 관한 연구¹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반디자인을 중심으로)

오세자²

A Study of Formative World with Plastic Furniture Design¹

(Focused on the anti-design in 1960s ~1970s)

Se-Ja Oh²

ABSTRACT

For ages, Furniture, it has been improved for human aesthetic needs as well as human life as a tool. In the 1960s, it's the age of an ideological conflict. And its war made the hippie-culture come out. And, it was economically bountiful. The epoch-making development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made the result of space development, conquering the moon in the first of the mankind. Made the appearance of the Anti-design against the modern design which was the also, it traditional values and the mainstream. The plastic has merits, low-priced, light, being perfectly able to do mass production of the all kind of shapes' furniture with all-desired colors. It was the wonderful material for the expression of the short-life character, the irony, the kitsch, and an intentional decoration to being chased by anti-design. And the result, the plastic furniture in the people's daily-life has well represented with reflecting the mind of the people in that age.

Keywords: Short-life, irony, kitsch, decoration.

1. 서론

1-1 연구목적

한 시대의 양식은 그 시대의 정치, 문화, 사회, 철학 등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시대의 정신을 표현해준다. 1960년대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호황기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냉전체제가 계속되던 시대였고, 두 나라의 경쟁은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져 그 결과, 인류 처음으로 우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인간이 달의 표면을 걷는 등의 우주시대가 개막되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과학의 업적에 대해 낙관적이었고,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소재와 기술의 가능성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때, 신소재

1. 논문접수: 2007. 08. 17.

2. 서울대학교 생활가구디자인학과, Dept. of Living Furniture Design, Seoul College, Seoul, Korea, 131-702.

E-mail: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오세자(E-mail: gaki5@paran.com).

와 새로운 형태에 부응하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중심에 플라스틱(Plastic)이 있었음을 본 논문은 주목하였다. 플라스틱은 19세기 말에 처음 탄생한 후 대량생산에 대변혁을 일으켰으며, 지금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에게는 전대미문의 미학적 도전과 생태학적 과제를 안겨주었다. 플라스틱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재일 것이다.

정치,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가치관에 변화가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시기인 1960년대의 반디자인(Anti-design)에 주목하였다. 반디자인은 1970년대까지 지속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에 본 논문은 반디자인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시대적 정신과 플라스틱 가구조형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한 시대의 정신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디자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다원화된 현대가구를 분석,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줄 것이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1960년대는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많았다. 획기적인 과학 발달로 우주개발이라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청년문화와 히피문화가 대두되어 기존의 가치관과 권위적인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은 디자인에도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디자인의 합리성을 주장하면서 19세기부터 현재까지 디자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모더니즘에 이의를 제기한 반디자인 운동의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시기로 한정하였다.

플라스틱은 발명된 이후로 현대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고, 플라스틱은 가구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현대가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플라스틱의 성형방법은 이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대부분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관련문헌과 선행논문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우선 재료에 대한 이해를 위해 플라스틱의 발달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플라스틱 가구가 발달하게 된 시기의 정치, 문화, 사회적 시대적인 요구와 변화를 조사하였고, 시대적 사례들에 따른 플라스틱을 사용한 가구디자인의 표현양상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 플라스틱가구의 역사

2-1 플라스틱 개발

플라스틱(Plastic)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성형할 수 있는'이라는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유래되었다. 가공하지 않은 플라스틱과 반합성(semi-synthetic)플라스틱이 최초로 발명된 것은 19세기 중엽으로, 그 대표적인 종류로는 1855년에 영국의 파크스(Alexander Parkes, 1813-1890)가 발명한 파케사인(Parkesine)과 1870년에 존 하이아트(John Hyatt, 1837-1920)가 특허를 받은 셀룰로이드(Celluloid) 등이 있다. 이 초기의 플라스틱은 흑석이나 호박, 또는 상아와 같은 고가 재료들의 대용품으로 사용되었지만, 천연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열이나 발화에 민

감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최초의 완전한 합성 플라스틱은 벨기에의 화학자 베이클란드(Leo Hendrik Baekeland, 1863-1944)가 개발한 베이클라이트(Bakelite)였다. 이것은 1907년에 포름알데히드와 페놀을 이용해 만들어진 후, 1910년에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소재였다. 베이클라이트가 발명된 당시에는, 전기산업이 한창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새로운 절연체를 찾는 것이 문제였다. 그때까지는 플러그나 스위치와 같은 전기 설비의 절연체로 고무가 사용되었는데, 가볍고 절연성이 뛰어난 베이클라이트로 대체되면서 빠른 속도로 보급될 수 있었다. 따라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디자이너들이 라디오, 냉장고, 탁상시계 그리고 전화기와 같은 새로운 전기제품들의 외형을 최신식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했던 베이클라이트는 처음부터 근대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이클라이트의 형태는 액체상태의 원재료를 성형 틀에 부은 후, 이를 굳혀서 만드는데, 그 결과로 얻어진 매끄럽고 유기적인 곡선형태는 제거하기도 쉬울 뿐 아니라, 1930년대의 유선형 스타일을 형성하는 한 부분이 되었다.

플라스틱은 대량생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소재였다. 초기에 설비투자를 위해 큰 비용이 들었지만 얼마 안 가서 저렴한 제작단가가 이를 상쇄시켜 주면서, 엄청난 수의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라인에서 복제되었다. 1926년 무렵부터 폴리염화비닐(PVC. Poly Vinyl Chloride), 폴리스티렌(PS. Polystyrene) 등 새로운 소재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상용화는 2차 대전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2-2 플라스틱가구의 발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다 강하고, 내열성, 내구성이 뛰어나 금속재료를 대체하며 특수 분야에 사용되는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Fiberglass-Reinforced-Polyester),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등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화학적인 구성을 달리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종류가 나올 수 있어서 현재까지 수백 종의 플라스틱이 개발될 수 있었다.(김 2002)

많은 회사들이 군수 테크놀로지서 쌓은 경험으로 일상용품을 생산하는데 도입했고, 화학 산업에서 더욱 개량된 합성수지의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특히 가정용품과 가구 생산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생활 전반의 제품들에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가 더욱 다양화되었고, 특히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Fiberglass-Reinforced-Polyester)은 디자이너들에게 용이하고 광범위한 소재 선택의 여지를 제공했다.

1953년경 독일의 칼 지글러(Karl Ziegler, 1898-1973)는 유기금속화합물을 연구하던 중에 이탈리아의 줄리오 나타(Giulio Natta, 1903-1979)와 함께 합성수지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을 발명하여 1963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이 발명은 가구 분야의 혁명을 가져왔을뿐만 아니라 수많은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새로운 가구용 합성수지인 폴리우레탄(PUR. Polyurethane), 폴리에스테르(Polyester), 폴리스티롤(Polystyrol) 등의 개발에 나섰다. 전후 시기의 디자이너들은 플라스틱이 당당한 하나의 소재임을 재확인시키면서,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경량성, 가단성, 방수성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모든 형태의 가구를 얼마든지 원하는 색상으로 완벽히 기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성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저렴하고 모던한 특성 등을 살릴 수 있었다. 1950년대 찰스 임즈(Charles Eames, 1907-1978),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 1910-1096)과 같은 디자이너들의 플라스틱 의자 디자인은 리처드 새퍼(Richard

Sapper, 1916-)와 마르코 자누소(Marco Zanuso, 1916-)에게 영감을 주어 최초의 사출성형 폴리에틸렌 의자가(Fig.1.) 탄생하게 되었다.

덴마크 디자이너 베르너 팬톤(Verner Panton, 1926-1998)은 1960년에 최초로 플라스틱만으로 된 캔틸레버식 의자(Fig.2.)를 개발하였다. 1963년 영국 디자이너 로빈 데이(Robin Day, 1915-)는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여 최초로 주입식 성형으로 의자를 제작하였다. 이것은 좌판과 등판이 곡선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고, 강철관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 의자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공공 인테리어의 필수품목이 되었다.

플라스틱은 생활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지만,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그 정점과 전환점을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다.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 결핍은 플라스틱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생산을 감소시킨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제불황은 소비 위축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무제한의 대량생산에 의한 생태학적 결과는 새로운 의식을 일깨우고, (김 2002) 특히 환경 의식이 성장하면서부터는 플라스틱 산업은 생태 환경에 폐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사회비평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후로 합성수지는 값싸고 천박한 재료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그래서, 야외용 가구나 산업 현장, 또는 공공 장소에 쓰이는 가구들에나 사용하였다.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이너들이 일상 생활용품과 플라스틱 라미네이트의 문양과 현란한 색상을 이용한 가구디자인을 선보이면서 기피했던 재료인 플라스틱이 다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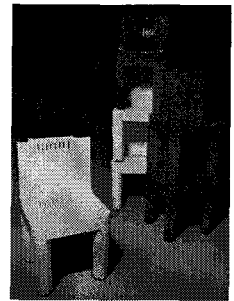


Fig. 1. Richard Sapper & Marco Zanuso, Staking child's chair,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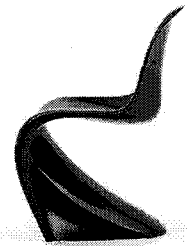


Fig. 2. Verner Panton, 1960.

3. 플라스틱 가구디자인의 배경과 표현양상

3-1 소비문화의 발달

2차 대전이후의 더없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사람들의 소비 성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휴대가 가능한 제품도(Fig.3.) 제작이 되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가전제품의 수는 늘어났으며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도 많아졌다. 1954년 미국 RCA사에서 처음 출시한 컬러TV를 시작으로 1960년대에는 가정으로 보급되었고, 사람들은 TV를 통해 사건을 총천연색으로 보게 되었으며, 문화와 트렌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Fig. 3. Richard Sapper & Marco Zanuso, Algol TV, 1964.

1950년대 말부터 디자인사자들은 청년문화와 10대 소비자들이 지닌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Woodham 2006) 이것은 젊은이들이 1960년대에 당당히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52년에 인디펜던트 그룹이 영국 런던에 결성되었는데, 예술가인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 1922-), 조각가 에두아르도 파올로치(Eduardo Paolozzi, 1924-2005), 디자인 평론가 레이너 반함(Reyner Banham, 1922-1988), 그리고 건축가인 피터(Peter Smithson, 1923-2003)와 앨리슨 스미슨(Alison Smithson, 1928-1993)을 비롯한 그룹 멤버들은 미국의 대중 소비자 문화의 성장을 탐구하고 찬양한 선구자들이었다.(Charlotte and Fiell 2003) 1956년 영국의 인디펜던트 그룹의 전시인 “이것이 내일이다”(This is Tomorrow)에 출품되었던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Fig.4.)은 방 전체가 산업사회 속의 소비문화로 가득 차있어서 미국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소비문화의 발전은 팝문화를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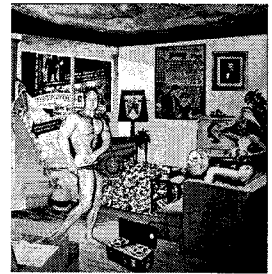


Fig. 4. Richard Hamilton, 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 So Different, So Appealing?, 1956.

3-1-1 일회용 가구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풍요로운 삶에 익숙한 젊은이들을 위한 단명의 신제품이 계속 쏟아지자, 점점 더 그와 같은 신제품의 특징에 의존하게 된 원색 증보판과 광택지로 만든 잡지들은 그 참신함을 일제히 찬양하였다.(Charlotte and Fiell 2003) 소매점의 쇼윈도 디자인도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새롭고, 충격적인 모습을 자동차가 벽을 뚫고 나오는 순간으로 연출하였다(Fig.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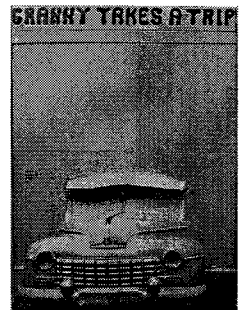


Fig. 5. Granny Takes a Trip. 1960s.

디자이너와 제조업자들은 변화와 소모성과 순간성이 생활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은 새로운 시장의 가치관에 부응하기 시작하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품의 양식화는 1960년대에 이르러 공업생산으로 옮겨가 ‘오늘 쓰고 내일 버린다’는 풍조를 만들었다. 전통과 지속적인 것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도전은 비닐이나 폴리우레탄 폼과 같은 부드러운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유연하면서도 공기로 부풀릴 수 있는 이론상의 ‘일회용’가구를 만들었다.

그 중에서 드 파, 두르비노, 로마치 그리고 스콜라리(De Pas, D'Urbino, Lomazzi & Scolari)가

1967년 PVC재질로 디자인한 투명한 바람의자(Fig.6.)와 버나드 홀더웨이(Bernard Holdaway)가 1966년 디자인한 톰어툼(Tomotom)의자(Fig.7.)는 종이로 만들어지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비닐 쿠션과 함께 디자인 되었는데,(김 2007) 이 의자들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팝의 특징 중 하나는 환경적인 논쟁에 대한 무시였다.



Fig. 6. De Pas, D'Urbino, Lomazzi & Scolari, Blow,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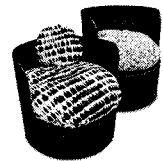


Fig. 7. Bernard Holdaway, Tomotom, 1966.

3-2 우주개발의 시대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1호를 발사하면서 우주개발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우주개발의 경쟁은 치열하였다. 그리고, 이 경쟁의 정점에서 미국은 마침내 1969년에 인간이 달을 정복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과 우주여행의 기대감은 미래와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크게 일으

켰고, 공상 과학 만화를 주제로한 작품 (Fig.8.)이나 영화 등의 소재로 채택되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1968년에 만든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2001: A Space Odyssey)'는 디자이너들에게 미래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올리비에 모르그(Olivier Mourgue, 1939-)의 과장된 모양으로 낮고 휘어진 의자도 이 영화에 모습을 보였다(Fig.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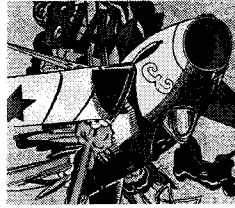


Fig. 8. Roy Lichtenstein, Blam, 1962



Fig. 9. '2001: A Space Odyssey', Olivier Mourgue, Djinn chair, 1965.

3-2-1 우주개발의 영향의 가구

런던에서 결성된 아키그램은 당시 영국의 건축디자인 관행이 지니고 있던 한계에 환멸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예언가적인 통찰을 구하기 위해 공상과학 소설의 세계로 눈을 돌렸다. 이들은 우주캡슐, 로켓, 심해측정기, 핸드팩같은 최첨단 테크놀로지에 대한 신념을 표명했다. 그들은 건물의 인습적인 형태를 거부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건축형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1968년 핀란드의 건축가 마티 수로넨(Matti Suuronen, 1933-)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헬리콥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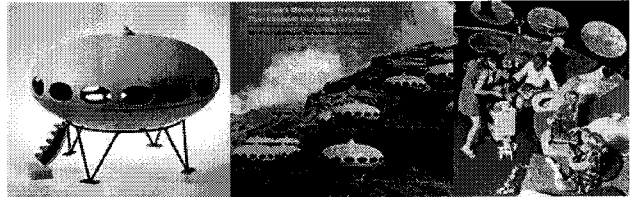


Fig. 10. Matti Suuronen, Futuro, 1968.

이동이 가능한 UFO 형태의 주택 푸투로(Futuro)를 제작하였다(Fig.10.).

조 콜롬보(Joe Colombo, 1930-1971)는 쾰른에서 개최한 1969년 '비조나'전에서(Fig.11.) 우주공간에서 영감을 받은 시설물을 선보였다. 이것은 개방된 주거 생활공간, 누울 수 있는 공간과 식사공간이 함께 존재하는 플라스틱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었다.

콜롬보는 1964년에 우주여행 개발에서 영감을 받은 이동식 생활설비라는 아이디어로 작은 냉장고와 2개의 가열기 그리고 도마 등을 갖춘 미니 부엌(Fig.12.)을 디자인하였고, 이러한 개념은 한층 발전하여 부엌, 수납장, 침대, 욕실을 갖춰 기본적인 생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형 가구설비 세트(Fig.13.)를 디자인하게 하였다.



Fig. 11. Joe Colombo, Visiona,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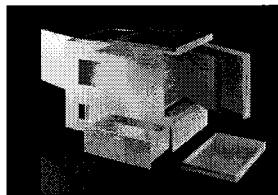


Fig. 12. Joe Colombo, mini-kitchen,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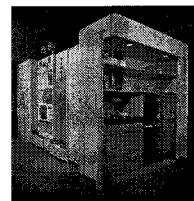


Fig. 13. Joe Colombo, Total Fur-nishing Unit, 1971.

피에르 자코모 카스틸리오니(Pier Giacomo Castiglioni, 1913-1968)와 아킬레 카스틸리오니(Achille Castiglioni, 1918-2002)는 1966년에 달 착륙에 착상을 얻어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고 있는 듯한 다리의 형태를 가진 알루나쥬(Allunaggio)시트(Fig.14.)를 디자인하였다.

또한, 베르너 판톤(Verner Panton, 1926-1998)은 다양한 조명을 디자인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우주시대의 형상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길게 늘어뜨린 샹들리에(Fig.15.)와 판텔라 램프(Fig.16.)를 들 수 있다. 판텔라 램프는 나팔모양의 받침대와 그 위에 올려놓은 반구형 아크릴 전등갓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불빛이 램프 전체에서 발산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램프를 하나의 우주시대의 형상처럼 보이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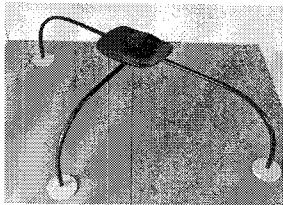


Fig. 14. Pier Giacomo Castiglioni, Achille Castiglioni, Allunaggio,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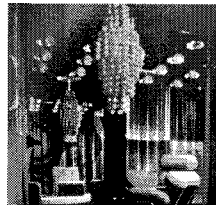


Fig. 15. Verner Panton, Chandelier,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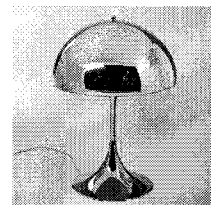


Fig. 16. Verner Panton, Panthella, 1970.

3-3 소비사회의 비판

1960년대 후반에 경직된 사회구조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대량 생산에 대한 낙관적 태도와 소비행태를 거부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미국의 베트남 정책 반대하여 히피들은 반전과 평화의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 유럽의 학생 운동 등은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여 주었다. 이탈리아의 제2세대 건축디자이너들은 주류를 형성하던 제조산업과 인연을 끊고 디자인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려 시도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디자이너들이 더 이상 산업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하고 독립적인 실험 활동을 하였다.

진부한 일상 사물이 앤디 워홀(Andrew Warhola, 1928-1987)의 작품을 통해 예술로, 동시에 소비 사회의 패러디로 전환되었다. 워홀은 원래 광고 제작을 하던 상업미술가였고, 작품소재는 세탁세제 상자처럼(Fig.17.) 대중에게 얼마나 익숙한 이미지인가가 가장 중요하였다. 그리고, 클라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1929-)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의 사물의 크기를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켰다(Fig.18.).



Fig. 17. Andrew Warhola, Brillo Box,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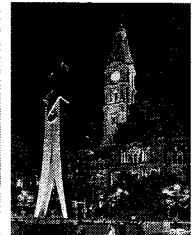


Fig. 18. Claes Oldenburg, Clothespin, 1976.

3-3-1 소비사회의 패러디(Parody)가구

소비사회의 일상적인 사물들은 과장되거나, 유희적인 표현의 가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스튜디오 시몬(Studio Simon)은 앤디 워홀의 1962년 작품인 캠벨의 수프를 직접적으로 참고하여 스톨(Fig.19.)을 디자인하였다. 이것은 재활용한 통에 실크스크린으로 캠벨 수프 캔처럼 인쇄하고, 천으로 감싼 쿠션을 좌판으로 놓은 것이었다. 조명디자이너 잉고 마우러(Ingo Maurer, 1939-)는 전구속에 전구가 들어있는, 높이가 55cm나 되는 거대한 전구 형태의 테이블조명 별브(Bulb, Fig.20.)를 1966년 디자인하였다.

또한, 드 파, 두르비노 그리고 로마치(De Pas, D'Urbino and Lomazzi)가 디자인한 조(Joe)

소파(Fig.21.)는 올덴버그의 거대한 조각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걸감은 가죽을 씌우고 속은 폴리우레탄으로 채운 거대한 야구 글러브 형태였다. 이 소파는 형태가 순수하게 창안되는 대신에 재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성제품에 새로운 맥락을 제시하였다.

1975년 디자인된 가에타노 페쉐(Gaetano Pesce,1939-)의 싯다운(Sit down)의자(Fig.22.) 역시 올덴버그에게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이 의자의 의인화된 형태는 순수형태보다 편안함을 제시하였고, 다소 세련미가 없는 이러한 디자인은 당시의 주류 디자인에 만연해 있던 뚜렷한 소비문화의 정반대 입장에서 있었음을 보여주었다.(Julier 2004)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시도는 사물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순수한 기술적 관점을 넘어 상징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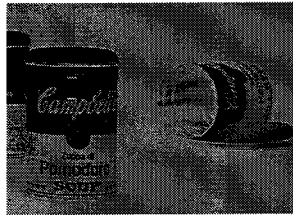


Fig. 19. Studio Simon, Omaggio ad Andy Warhol,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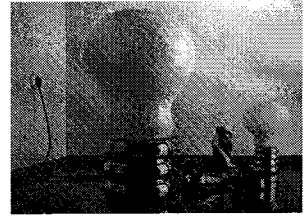


Fig. 20. Ingo Maurer, Bulb,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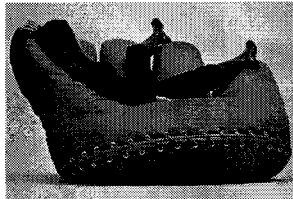


Fig. 21. De Pas, D'Urbino, Lomazzi, Joe,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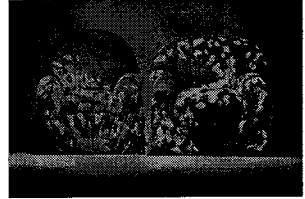


Fig. 22. Gaetano Pesce, Sit down, 1975.

3-4 기능주의의 비판

과학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기능주의 이론은 대량 생산을 가져왔고 즉각적인 형식주의를 초래하였다. 이에, 19세기부터 지속되어온 모더니즘은 1960년대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도 기능주의 건축을 비롯하여 산업과 디자인 단체들이 기능주의를 격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모던에 대한 비판적 논쟁에서 건축의 문화적, 심리적, 상징적 관점들에 중심을 두었으며, 포스트 모던 이론을 형성하는 최초의 논문이 발표되었다.(Haufe 2005)

기능주의에 대안을 찾기위한 실험들은 모더니즘의 레스이즈 모어(Less is more) 라는 견해를 거스르면서, 사물의 기능성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도된 장식으로 굿 디자인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조각가 클레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는 원래 단단한 사물의 소재의 속성을 부드럽게 바꾸어 버리기도 하였는데(Fig.23.), 이러한 조각에 대한 역설과 유희적인 디자인은 기능주의와 반대의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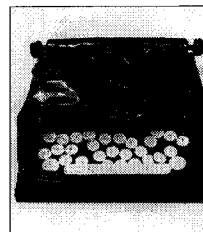


Fig. 23. Claes Oldenburg, soft Piano,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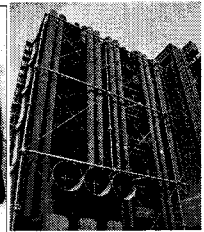


Fig. 24. Renzo Piano, Richard Rogers, Pompidou Center, 1977.

렌조 피아노(Renzo Piano)와 리차드 로저스(Richard Rogers)는 1977년 완성된 퐁피뉴 센터(Fig.24.)를 설계하였다. 이들은 관습적이고 전형적인 건물로 가득찬 프랑스 파리에 기존 제도에 반항하는 건물을 짓기를 원하였다고 회고하였다.

3-4-1 역설과 유희적인 가구

아르키즘(Archizoom)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 소재, 착상을 탐구하였고, 1967년 발표한 꿈의 침대(Naufragio di Rose, Fig.25)는 아르데코와 팝운동 모티프를 혼합하였고,(Massey 1998) 또한, 1968년 디자인한 사파리(Safari, Fig.26.)는 인조 표범가죽 문양을 사용한 키치풍으로 좋은 취향의 표준을 의도적으로 조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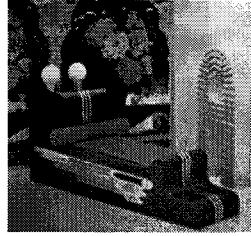


Fig. 25. Archizoom, Naufragio di Rose,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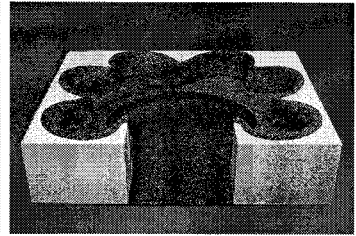


Fig. 26. Archizoom, Safari, 1968.

올덴버그가 보여준 시각에 대한 역설과 유희적인 디자인은 그루포 스트룸(Groupo Strum)의 앓거나 누울 수도 있는 거대한 풀밭 프라토네(Pratone, Fig.27.)와 스튜디오 65(Studio 65)의 카피텔로(Capitello, Fig.28.)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의자들은 딱딱해 보여서 앉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드럽고 편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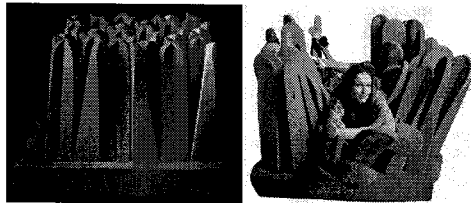


Fig. 27. Gruppo Strum, Pratone, 1971.



Fig. 28. Studio 65, Capitello, 1971.

3-5 장식과 색채-사이키델릭 예술의 영향

1960년대에는 젊은층의 문화가 주도적으로 부각되었다. 팝음악, 히피문화, 팝아트는 기존의 행동 양식에 대한 저항이었고 반란이었다.

팝음악과 히피문화의 여파로 마약과 자유연애, 사회적 반항심이 급속도로 사회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LSD등의 마약을 사용하여 느끼는 감각의 해방체험을 작품으로 재현하는 것을 사이키델릭 예술(Sychedellic Art)이라고 하고, 이러한 마약의 환각경험과 연관된 사이키델릭한 패턴은 일상적인 감각영역을 확대시킨 색다른 무늬나 형광성이 강한 색사용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선명하고 다채로운 마약의 환각 이미지가 포스터(Fig.29.) 음반커버(Fig.30)의 류 등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Fig. 29. Bonny MacLean, Poster,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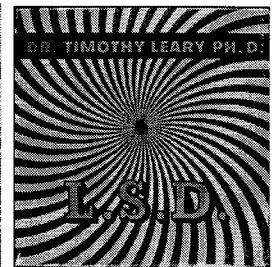


Fig. 30. Timothy Leary, Album Jacket L.S.D.

사이키델릭 예술의 색채와 패턴의 영향은 가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베르너 팬톤(Verner Panton)은 1970년의 '비죤나II(Visiona2)'에서(Fig.31.) 미래의 주거 시설물을 선보였는데, 가구들은 모두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조각적 형태와 선명한 원색의 조합들로 환상적인 느낌을 만들어냈고, 피에르 폴랭(Pierre Paulin, 1927-)도 261시리즈 소파(Fig.32.)에 환상적인 곡선과 패턴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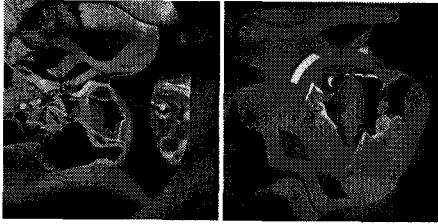


Fig. 31. Verner Panton, Visiona2,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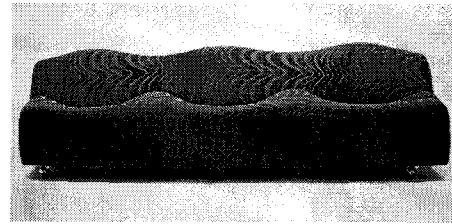


Fig. 32. Pierre Paulin, 261 Sofa, 1968.

4. 결 론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시대적인 상황과 플라스틱가구의 조형적 특징을 비교하여 분석해 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lastic furniture in 1960s ~ 1970s

	주요 원인	가구의 특징	주요 디자이너
소비문화의 발달	경제적 풍요로움	소모성, 순간성	De Pas, D'Urbino , Lomazzi , Scolari
우주개발의 시대	달의 정복, 공상 과학	최첨단 테크놀로지에 대한 신념	Joe Colombo, Verner Panton
소비사회의 비판	대량생산의 저항운동	패러디	De Pas, D'Urbino , Lomazzi , Scolari, Gaetano Pesce,
기능주의의 비판	굿 디자인에 의문제시	역설, 유희	Archizoom, Gruppo Strum, Studio 65
사이키델릭 예술의 영향	팝음악, 히피문화	조각적 형태, 선명한 원색	Verner Panton

1960년대에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시민적 생활 형태와 사물에 대한 형식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으며, 디자인에서도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온 기능주의를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찍이 없었던 경제적 번영과 교통, 우주 항공 기술, 정보 통신, 미디어 등의 기술의 발전은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색다른 무늬나 선명한 원색의 플라스틱 가구가 소모적이고, 유희적이며, 역설적이기도 한, 그리고, 최첨단 테크놀로지에 대한 신념에 찬 대담한 형태들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제조의 기술 발달은 이러한 시대에 잘 부합하는 가구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1960년대~ 70년대의 디자이너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세상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적절하게 디자인에 적용시켰다. 새로운 재료를 적재적소에 이용하여 시대정신을 담고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이다. 시대의 사회적 특성과 가구디자인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복잡해진 현대 사회

오세자- 플라스틱 가구디자인의 조형세계에 관한 연구

와 다원화된 현대가구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디자이너들에게 플라스틱 재료는 여전히 미학적, 생태학적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료에 대한 이해와 플라스틱 가구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 가이줄리어. 김양수역. 2004. 디자인 디자이너 사진. 시공사: 120
김성아. 2007. 시대별 변천에 따른 종이 가구 디자인의 특성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vol.18(3): 181
김은영. 2002. 플라스틱 의자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7, 40
샬로트&피터 필. 박혜수 역. 2003, 20세기 디자인. 아트 앤 북스: 140-141
앤 매시. 김주연역. 1998. 20세기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사: 120
조나단 M 우드햄. 박진아 역. 2006. 20세기 디자인. 시공사: 213, 217-218
토마스 하우페. 이병중 역. 2005. 디자인. 예경: 14

논문 제출 안내

한국가구학회지 (vol.19/no.2)의 논문을 영문 규정 및 요령에 의거하여
2008년 1월 31일(목)까지 제출 바랍니다.

한국가구학회 편집위원장